



신년수상

# 매일 내게 오는 새날



유인경

〈경향신문 생활문화부 차장〉

새로 산 수첩에 올해에도 인연을 맺고 싶은 이들의 연락처를 옮겨 적고, 새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을 몇개씩 써 보고 주먹을 불끈 쥐고 각오를 다지는 것이 해마다 신년을 맞는 모습이었다.

남이 보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르기를 '원하는 일을 글로 써서 각인시키면 효과적' 이라기에 일기장이나 수첩에 '돈 많이 벌여 넓은 집으로 옮길 것' '책을 많이 읽을 것' '승진이 되었으면' 등등을 적어놓기도 했다. 게으른 자신을 반성하고 성공이나 행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다. 아니 언제나 복권당첨같은 횡재수가 생기기를 바라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했다. 그냥 건달처럼 허허실실 희희낙낙 살기로 했다. 갑자기 도를 통해서가 아니다. 40년이 넘는 삶을 살았고 세상과 사람들을 엿보고 구경하는 것이 직업인 기자로서 경험끝에 체득한 21세기를 살아가는 권법인 셈이다.

이어령박사는 21세기는 베토벤이 아니라 모차르트의 시대라고 했다. 무조건 심각하고 암울한 베토벤 스타일로는 이 혼돈스럽고 복잡한 시대는 정신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 모차르트처럼 경쾌하고 발랄하게 때론 가볍게 세상을 바라보고 까르르 웃으며 살라는 주장이다. 국내 최초로 패션쇼를 열었고 74세에도 여전히 패션디자이너로 활동중인 원로 패션디자이너 노라노씨는 지지치 않고 일하는 비결을 '건달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건달이란 깡패나 조폭이 아니라 목에 힘주지 않고, 꼭 1등을 하기 위해 안달하지 않고 즐겁게 사는 이들을 뜻한다. 야욕에 불타 부정을 저지르거나 너무 자신을 혹사시켜 성인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돌연사하는 것보다 조연으로도 만족하며 욕심보다는 재미있는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란 것이다.

나딘 스테어란 이가 85세에 쓴 '다시 한번 더 인생을 산다면' 이란 글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마음을 편히 갖고 둥글둥글 살아가리라

이번 삶에서보다 더 어리석게 살리라

사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일은 적게 하리라

더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더 자주 여행을 다니리라

진짜 어려움을 더 많이 만나고 상상속의 어려움은 덜 만나리라

앞으로 살게될 많은 세월을 매일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날그날 살아가리라. 나는 어디든 한번 가려면 온도계, 보온병, 레인코트에 낙하산까지 챙겨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 그때는 짐없이 여행을 떠나리라

...

춤을 더 자주 추리라

회전목마도 더 많이 타리라

테이지꽃도 더 많이 따리라 -

이처럼 '둥글 둥글 살아가자' 고 하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는 것은 성공이나 행복 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치들이 별로 가치가 없어져서 일지도 모른다. 성공신화를 일으켰던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의 몰락이나 모 방송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성공시대'에 등장했던 경영인들의 3분의 1이 부도가 난 것, '스물셋의 사랑 마흔아홉의 성공'으로 여성들에게 성공신화를 강조하던 조안리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 인기코미디언 겸 국회의원이기도 했던 이주일씨가 폐암으로 죽음을 앞둔 것, 그리고 미국 뉴욕의 테러사태 등으로 바로 한치앞의 사태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삶을 살아서 아날까.

그렇다고 이솝우화 '개미와 베짖이'에 나오는 베짖이처럼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새해만이 아니라 매일 내게 오는 새날을 선물처럼 즐겁게, 감사하게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그래서 새해엔 머리보다 몸이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 그동안 지적인 척하며 잔머리만 굴리며 살아왔지만 이제 몸이 느끼는대로, 마음이 가는대로 감정에 충실하려 한다. 웃고 싶으면 활짝 웃고 울고 싶으면 다리를 버둥거리며 엉엉 울어보겠다.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피곤하고 지치면 쉬겠다. 철학책이나 외국원서를 들고 다니느라 팔만 아프기보다 만화책을 보며 킁킁거리겠다.

무엇보다 새해부터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란 말을 많이 하고 친구나 친지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거나 메세지라도 보내겠다. 나이들어서, 혹은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일은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보다는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그 일은 왜 안했을까"라고 한다.

숫자상의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다운 순수함과 열정, 호기심과 사랑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을 맞이하겠다. 울기도 하고 화도 내겠지만 더 많이 웃어야지. 즐거워서 웃는게 아니라 웃다보면 즐거워진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